

물 확보 '최대화' ... 물 스트레스 '최소화' ...

물 없이는 생명이 불가능한 우리 인류에게 물은 소중하고도 아껴써야 할 자원이다. 이는 것은 대명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절반이량이 1인당 하루 9리터의 물로 살아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89리터로 상당히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UN에서 공개한 '세계 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창군의 물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답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물을 최대로 확보하면서도 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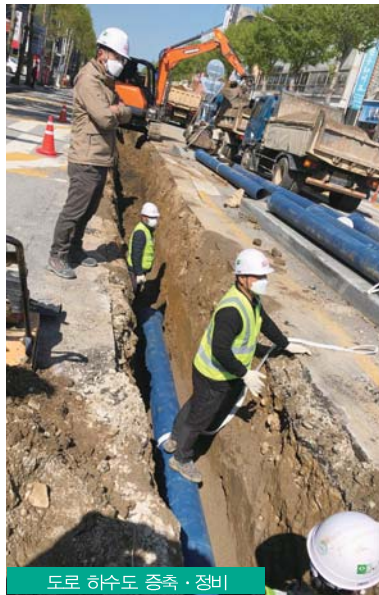
이를 위해 민선 7기 고창군은 적극적인 물 관련 정책들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우리 생활 주변에 각종 지표로 남아 있다. 민선 7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고창군의 물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다.

▲물 수량 최대 확보

물은 사회와 경제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다. 개인에 있어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가능하도록 도시 또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7기 고수산업단지의 방향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가공단지로 설정한 것은 향후 고창군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부안댐 물의 증수와 이미 수로관으로 연결돼있는 섬진강댐의 통수협의를 통해 있다. 산업단지 세부 밑그림이 그려지고 협의가 완료될 경우 고창군은 전북에서 군부 물 수량 최대 확보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하수도 증축·정비

▲물 실효성 확보

외적 물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내부의 새는 물을 잡아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민선7기 이전 노후 상수도 관망 57.5 km 중 2021년 말까지 36.7km를 교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창군 전역 유수율은 민선7기 이전 57.8%이던 것이 2020년말 75.4%까지 높아졌으며, 현재 추진중인 고창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자인 고창읍·아산지구 유수율은 민선7기 이전 61.4%였으나 고창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상반기에는 85% 달성을 목표로 물 실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 재활용을 증대

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물 수량을 추가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수나 빗물을 간단한 재처리로 재활용하는 중수 생산에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수는 상수와 하수 중간에 위치한 물이다. 고창하수처리장에서는 민선 7기 동안 206천톤을 재이

용함으로써 하수 재활용률이 있어 전북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빗물에 있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시행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해 사용한 물을 잘 처리하여 배출하는 것도 물 확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민선 7기 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노력의 흔적인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하수처리 능력 확대

고창군에서는 민선7기 동안 하수 처리 능력을 대폭적으로 높이는 공사를 힘써 추진해 왔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14개소 7,170톤 규모의 설비를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하수관로 또한 신설 152.3km, 교체 11.7km를 완공하거나 공사 중에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민선7기 이전 66.3%이던 보급률은 2020년말 현재



수도계량기 동파 여부 조사



상가 하수도 증축 공사 현장



배수지 관제센터

식품가공단지 설정으로 섬진강댐 통수 등 협의 중 협의 완료시 도내서 군부 물 수량 최대 확보 지자체 전망

하수·빗물 재활용 물 수량 추가 확보 효과

하수처리능력 향상 공사 보급률 2020년 말 현재 74.7% 환경부 운영분야 '고점수'

74.7%에 달하고 있다. 명실상부 고창군 지속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수시설 안정적 운영

이러한 하수처리 시설 확대와 함께 운영능력 또한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안정적 운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고창군이 선정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뿐만 아니라 고창군 경제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소중한 물의 가치와 확보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환경이 지속 공존할 수 있도록 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